2020.5.6 이윤규 한국싱크탱크

[2020.4.21.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의 ‘코로나19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file:///C:/Users/user190122-9/Downloads/%EC%9D%B4%EC%8A%88%EB%B8%8C%EB%A6%AC%ED%94%84%20189%ED%98%B8(%EC%B2%A8%EB%B6%80)%20%EC%A4%91%EA%B5%AD%EC%9D%98%20%EC%BD%94%EB%A1%9C%EB%82%9819%20%EC%9C%84%EA%B8%B0%EB%8A%94%20%EB%81%9D%EB%82%98%EC%A7%80%20%EC%95%8A%EC%95%98%EB%8B%A4.pdf](file:///C:\Users\user190122-9\Downloads\%EC%9D%B4%EC%8A%88%EB%B8%8C%EB%A6%AC%ED%94%84%20189%ED%98%B8(%EC%B2%A8%EB%B6%80)%20%EC%A4%91%EA%B5%AD%EC%9D%98%20%EC%BD%94%EB%A1%9C%EB%82%9819%20%EC%9C%84%EA%B8%B0%EB%8A%94%20%EB%81%9D%EB%82%98%EC%A7%80%20%EC%95%8A%EC%95%98%EB%8B%A4.pdf) . 일부 발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공식 보고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북미와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하루에 발생하는 감염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국내 감염자 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들의 증가를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높은 감염력과 치명률을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사태로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중국 정부는 국내 상황이 완화되기 시작한 2월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마스크 외교’의 성과 이른바 마스크 외교(Mask Diplomacy)라고 불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정부는 3월 13일 중유럽과 동유럽의 17 개 국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자문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방역물자 지원도 약속하였다. 24일에는 중남미 25 개국과도 화상회의를 갖고 방역 대책에 대해 조언하였다. 한편 체코에 항공기 7 대 분량의 의료물자를 지원하였고, 세르비아에도 호흡기, 마스크, 진단키트 등의 의료물자와 방역 전문가들을 보냈다. 이란과 이라크에도 진단키트와 의료물자를 보냈고 이탈리아에도 중국 적십자를 통해 의료물자와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3월 중순까지 중국은 이탈리아에 마스크 50만 개, 4톤 분량의 의료물자, 1,800 벌의 보호복, 15만 개의 장갑을 지원하였다. 폴란드에는 검진키트 1만 개, 마스크 2만 개, 보호복 5천 벌, 보호안경 5천 개, 장갑 1만 개 등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런 중국의 노력은 효과를 보는 듯하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월 4일 WHO 집행이사회에서 중국의 조처로 바이러스가 해외로 심각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며 중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또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중국 밖에서는 아직 널리 확산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국이 발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취한 조처가 세계에 시간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탈리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해 중국의 의료지원을 받은 일부 국가의 고위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인종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 부르며 중국을 비판하던 미국과의 공방도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중국 정부는 외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와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이 우려 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외교적 위기를 지속시키는 요인들

**첫째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 문제이다.** 이번 코로나19 발원과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 당국의 불투명하고 불충분한 정보 제공은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더욱이 미국 군인들이 중국에 코로나19를 퍼트렸다는 음모론을 편 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크게 떨어뜨렸다. 작금의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대 규모 확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비책을 세울 때 중국의 낮은 신뢰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 미지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마스크 외교가 중국이 원했던 효과를 발휘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 하였던 것처럼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의료물자가 부족하였고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게 상당한 물자를 지원하거나 수출하였다. 그런데 이 물자들 중 일부는 감염병 대응에 부적합한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마스크 130여만 개 중 절반에 가까운 60여만 개는 불량임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스페인과 체코가 수입한 중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이 지원하거나 수출한 의료관련 물자의 품질 불량에 대한 논란은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마스크 외교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였던 국가 이미지에 오히려 해를 입히고 있다.**

**셋째, 친중(親中) 국가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문제이다.** 개별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을 보는 시각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중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들은 중국의 지원과 협조에 크게 감사하며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국가들은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낮다는 점이 중국이 처한 딜레마이다. 물론 의료물자와 장비들을 순수하게 인류애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혜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 국가들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이 제약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인종 차별 문제도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서구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과 행태를 비난하던 중국은 정작 자국 내 아프리카인들을 차별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거나 이들을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내쫓아 노숙을 하게 하는 등의 차별 행위가 벌어지자 베이징 주재 아프리카 대사 그룹이 서한을 통해 항의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원조에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공공외교가 가장 활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국가이미지를 높여놓았다고 평가받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번 인종차별 사태는 그동안 중국이 공들여 쌓은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시진핑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비난 받아온 인권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 처한 마지막 위기 요인은 악화되어가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두 나라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이번 사태가 중국 책임임을 낙인찍으려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트위터 메시지에서 중국의 “투명성에 감사한다”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 미국은 중국에 의료물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 불투명성, 코로나19 발원과 확산 책임 등을 두고 두 나라는 갈등을 빚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은 이번 사태로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의약품과 의료물자의 대중 의존도를 문제삼고 있다. 보건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의약품과 물자의 생산이 중국에서 이뤄지다보니 미국인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어온 두 나라의 교역관계는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고 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빠른 경제회복을 원하는 두 나라에게 모두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입는 손실이 더 클 것이다.**

신뢰 제고가 위기 극복의 길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맞닥뜨린 위기들은 중국 스스로 초래한 면이 크다.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도 중국 내부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신뢰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 회복은 중국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포 과정이 투명해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가 투명해지면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가 분명해 질 것이므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한 국가 또는 정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들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국제적인 연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이 공생의 자세로 위기극복 메커니즘을 구성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위기는 일어났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인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것인지는 중국의 손에 달려있다. 처칠은 “좋은 위기를 결코 허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고 하였다. 중국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말이다.